

인후두위산역류증(Laryngopharyngeal reflux: LPR) 관련 증상에 대한 시사프리트(Cisapride)의 효과

주관연구책임자: 최홍식*(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의학연구소)

공동연구자 I (이비인후과, 가나다 순): 고중화(아주의대), 김광문(연세의대), 김광현(서울의대), 김민식(가톨릭의대), 김영모(인하의대), 김찬우(가천의대), 김춘동(이화의대), 김형태(가톨릭의대), 남순열(울산의대), 노영수(한림의대), 박제울(대구가톨릭의대), 서장수(영남의대), 손영익(성균관의대), 양훈식(중앙의대), 왕수건(부산의대), 이동엽(경희의대), 장혁순(순천향의대), 정성민(이화의대), 정필섭(단국의대), 조계식(전남의대), 최종욱(고려의대), 홍기환(전북의대)

공동연구자 II (의학통계학과): 김동기(연세의대)

인후두위산역류증(Laryngopharyngeal reflux: LPR)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프리트(10mg tid, 8주간)의 단독 투여만으로도 증상 개선 유효율을 19개 병원에서 관찰하였으며(CIS-KOR 051), 4개 병원에서는 시사프리트(10mg tid, 8주간)와 라니티딘(150mg bid, 8주간)을 무작위 번호에 의하여 투여하고 증상 개선 유효율을 조사하였다.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하여 19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중탐침 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탈락자를 제외하고 투약을 모두 마친 환자가 대상인 PPA 피검자에 대하여 시사프리트(10mg, tid)를 4주간 단독 투여하였을 때 유효율은 53.5%, 8주간 투여하였을 때 유효율은 77.9%에 달하였다(CIS-KOR 051).

PPA 분석에서는 4주 후의 라니티딘 투여군의 유효율이 19.6% 였음에 비해 시사프리트 투여군은 4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21$) 시사프리트 투여군의 유효율이 높았다. 8주 후에는 라니티딘 투여군의 유효율이 35.6%로 4주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나, 시사프리트 투여군은 유효율이 82.1%로 4주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향상되어서, 8주 투여 후의 라니티딘과 시사프리트 투여군 간의 유효율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시사프리트 투여군이 더 좋았다(CIS-KOR 052). 19명을 대상으로한 24시간 이중탐침 산도검사에서는 13명(68.4%)에서 LPR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효과에 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면, 시사프리트에 의한 치료 효과가 라니티딘에 의한 치료 효과보다 10배(Odds ratio: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PR 관련 증상에 대한 위 식도 운동개선제의 사용(시사프리트)이 위산 분비 감소를 유발시키는 것(라니티딘)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이며, 간접적으로는 LPR은 위산 과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운동기능 저하에 기인한 것일지 모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